

근대전환기 서울의 도시화와 음녀를 둘러싼 담론의 성격*

- 『대한매일신보』 소재 시가를 중심으로 -

정인숙**

1. 머리말
2. 근대전환기 서울의 도시화와 '음란'의 문제
3. 『대한매일신보』 소재 시가에 나타난 음녀의 성격
4. 맺음말 : 부정적 여성 형상의 지속과 변모

<국문초록>

조선후기 문학 작품에 등장한 부정적 여성 인물 가운데 특히 음란한 여성은 19세기를 거쳐 20세기로 들어서 계속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본고는 淫女를 둘러싼 담론이 조선후기 이래 지속되어 온 점에 주목하고, 『대한매일신보』 소재 시가를 중심으로 20세기 초 근대계몽담론의 자장 안에서 매우 단순한 어조로 여성을 강제하는 듯 보이는 음녀 담론을 보다 미세하게 접근하여 그 다면화된 성격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음녀로 지목되는 여성들의 특징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진한 화장과 사치스런 옷차림이다. 화장을 하고 외모를 꾸미는 것 자체가 비난거리였고 소비하는 여성은 곧 음란한 여성으로 매도되기 일쑤였다. 그런가 하면 문 밖으로 나온 여성, 또는 거리로 나온 여성이 음녀로 지목된 경우도 흔하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NRF-2007-361-AM0027) 논문으로 완성하는 과정에서 세 분의 심사위원이 본고의 문제점을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셨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HK교수

다. 여성의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시대가 도래 했으나 정작 거리로 나온 여성에 대한 시선은 곱지 못했다. 이들 여성은 거리를 구경하는 혹은 방황하는 존재로 비취지는 경우가 많았고 대개 성적 욕망을 품고 있는 인물로 묘사되었다. 한편 음녀로 지목된 여성들은 근대 위생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이들 여성은 성병과 연관된 병적인 존재이자 더러운 존재로 멸시되곤 했는데, 근대 보건위생 담론을 통해 청결에 대한 선호와 불결에 대한 혐오감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음녀들은 추하고 더러운 존재로 낙인찍혀 버린 결과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음녀 담론이 근대전환기 서울의 도시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을 주목하였다. 서울에는 저녁이면 남녀들이 몰려드는 연극장이 있었고, 화려한 야경으로 도시민을 유혹하는 진고개, 본정 등의 거리가 있었으며,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성적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매음가가 있었다. 조선후기 뺑덕어미나 괴똥어미와 같은 부정적 여성 형상이 문학작품에서 부각된 이래, 20세기 초 이러한 도시적 배경 속에서 여성의 ‘음란’은 더욱 문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초 폭발적으로 등장한 음녀 담론을 검토하면서 전통적인 부정적 여성 형상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지속되고 또한 변모된 양상을 추적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 있다고 하겠다.

핵심어 : 음녀, 서울, 도시화, 사치, 소비, 위생, 근대 계몽

1. 머리말

조선후기 문학 작품에는 사치와 소비를 일삼는 부정적 인물들이 심심찮게 등장한다. <愚夫歌>의 개똥이, 꿈생원, 핑생원 등이나 <庸婦歌>의 ‘저부인’과 ‘뺑덕어미’, <福善禍淫歌>의 ‘괴똥어미’ 등이 그 예이다. 과도한 사치로 인한 폐해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욱 부각되어, 세속에 만연한 사치 풍조를 무분별하게 좇는 어리석은 행태를 꼬집는 언술들은 대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조선후기 여성의 소비문화에

대한 담론의 성격을 분석한 바, 조선후기에는 경제적 번영을 토대로 생활필수품 외에도 각종 기호품들이 증가하면서 고급취향의 소비문화가 확산되었고 근검절약의 덕목이 여성규범으로 강제되는 것과는 다른 층위에서 소비에 대한 강한 욕망이 발산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¹⁾ 규범적 차원이 아닌, 時俗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 고층과 함께 적절히 中度를 지키고자 하는 실용적인 인식도 확인하면서 당시 소비문화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느꼈다.

그러나 화장이나 옷차림, 주전부리 등에 관심을 두며 소비행위를 즐기는 여성은 대개 부정적인 형상으로 문학 작품을 통해 문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화려한 의복이나 외국에서 들여온 화장품을 즐기는 여성을 비롯하여 떡이나 엿과 같은 주전부리에 대한 식탐이 지나친 여성²⁾은 늘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 물론 그러한 여성의 존재가 작품 내에서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 하더라도³⁾ 이들이 욕망을 발산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일탈형 여성 인물’⁴⁾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규범적인 여성상에 정면 배치되는 이러한 일탈형 여성 가운데 본 논의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여성은 바로 ‘淫女’이다. 이들은 스스로없이 외간 남자에게 추파를 던지고 姦夫와 달아나는 등 쉽게 淫慾을 발산하는 여성이다. <용부가>의 ‘저 부인’이 초롱꾼과 정분을

1) 정인숙, 「조선 후기 도시의 발달과 여성의 소비문화에 대한 담론의 성격」,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2.

2) 아이 핑계를 대고 엿과 떡을 사먹는 여성(“엿장수와 떡장수는 아기 핑계 걸으치 안코” <용부편>(정재호 주해, 『초당문답가』, 박이정, 1996. 참고로 『초당문답가』는 이본에 따라 ‘용부가’, ‘용부편’ 등 그 안에 수록된 작품 제목 상 차이가 있는데, 각주가 아닌 본문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부가’로 지칭하기로 한다. 이는 ‘우부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이나 新行 와서 게걸스럽게 온갖 음식을 먹어치우는 여성(“신형하여 오난 날의 가마문인 나서면서/ 눈을 들어 사방 살피 기침을 크게 하니 신부형실 바이업다/ 차담상이 허다 엄식 싱을 먹기 고이하다/ 무산 비가 그리 곱과 국 마시고 썩을 먹노라/ 좌중부녀 어이 아라 썩조각을 집어 들고/ 이도 주고 저도 주니 식덕형실 전혀 업다” <북선화음가>(권영철 편, 『규방가사』 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의 예를 들 수 있다.

3) <심청전>에서 ‘뽕덕어미’의 역할은 악역이기 이전에 해악적이고 골계적이어서, 독자들에게 즐거운 웃음을 제공하고 <심청전>의 비장한 분위기를 골계적 분위기로 전환시키는 데 큰 몫을 담당하므로, 그 존재와 역할은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논의된 바 있다.(정하영, 「심청전에 나타난 악인상-뽕덕어미론-」, 『국어국문학』 97, 국어국문학회, 1987, 27~28면)

4) 길진숙, 「뽕덕어미와 괴똥어미의 일탈과 그 성격」, 『한국고전연구』 19,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참조.

맺어 팔자나 고쳐보려 한다든가⁵⁾ ‘뽕덕어미’가 여러 번 姦夫와 달아나다 官婢定屬 되었다든가⁶⁾ 신재효본 <심청가>에서 ‘뽕덕어미’가 젊은 남성을 유혹한다든가⁷⁾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아내상은 지아버를 공경하는 정숙한 여성이다. 전형계녀가의 ‘士君子’ 대목에서는 언어를 조심하고 사사로이 공경하며, 미답다고 방심해서는 안 되고 친하다고 방자히 굴어서도 안 되며 내외를 항시 구별하여 음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⁸⁾ 아무리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침석에서 유혹하는 음란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⁹⁾ 그런가 하면 여성의 게으름과 편안함은 늘 경계되어 왔다. 몸이 편하고 일이 없으면 간악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므로 여성은 쉬지 않고 女工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¹⁰⁾

한편 외모를 꾸미는 것은 娼妓와 같이 남성을 상대하는 여성에게나 허용되었고 일반 여성에게는 엄격히 규제되었다. 따라서 화장을 하고 고운 복장을 하는 여성은 ‘요사스러운 부인[妖婦]’으로 지목되었고 당시 上薄下厚의 의복 유행도 ‘창기들의 아양 떠는 자태에서 나온 것’이기에 규중 부인들은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되었다.¹¹⁾ 조선시대 미인을 평가하는 잣대는 이중적이어서 부인으로서의 여인은 행실과 품성, 정갈함을 중요시 했다면 기녀나 첩은 화려한 粉黛化粧과 함께 미인이기를 바랬다.¹²⁾ 따라서 일반 부녀자들과는 달리 기녀는 여성성을 강조한 옷차림과 사치에 대해 매우 너그러웠다.¹³⁾ 조선후기에 유행한 좁고 짧은 저고리에 하체를 강조한 풍성

5) “들고나면 초롱군이라 八字나 고쳐 볼가” <용부편>

6) “간부달고 다라느서 官婢定屬 호못지다” <용부편>

7) “머슴 잡고 어린양하기, 젊은 중놈 보면 웃기, 코 큰 총각 술 사주기” <심청가>

8) “가장은 하늘이라 하늘갓치 중후여라/ 언어를 조심하고 스스이 공경하고/ 미답다고 방심 말고 친타고 아당말라/ …니외란 구별하여 음란케 마라스라” <계녀가>(권영철 편, 앞의 책, 계녀교훈류 1번 작품)

9) “침석에 고흥하여 음란케 말아서라” <계여가>(위의 책, 계녀교훈류 2번 작품)

10) “몸 便하고 일 업스면 간악이 절로 나고/ 女工에 충착하면 私心이 물러가느니” <부인잠> (『초당문답가』)

11) 이덕무, 「사소절」, 제6 부의1 복식(민족문화추진회 편, 『국역 청장관전서』 6, 서울, 1997, 123면, 126면)

12) 이행화·박옥련, 「근세 일본과 한국의 화장문화 비교」, 『일본근대학연구』 29, 한국일본근대학회, 2010, 306면.

하고 긴 치마의 상박하후 스타일은 여성들의 성적 매력을 다분히 강조한 것으로, 기녀에게나 허락되던 여성성을 강조한 옷차림이 일반 부녀자들에게도 전파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게으름, 외모 치장, 사치 및 소비 등과 연관된 여성은 곧 음녀와 연결된다는 점이다. 게으르고 소비적인 여성이 본성적으로 방탕하고 음란한 성정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선행 연구에서도 언급된 바 있으나,¹⁴⁾ 본고에서는 이러한 음녀를 둘러싼 담론이 19세기를 거쳐 20세기로 들어서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물론 근대계몽기의 풍속 개량 담론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매음녀의 문제를 중심으로 여성의 성을 통제하려는 담론이 애국계몽지식인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생산되던 맥락이 검토된 바 있으나¹⁵⁾ 여기서는 조선후기의 연장선상에서 20세기 초 음녀 담론을 보다 미세하게 접근하고자 한다.

이 시기 음녀 담론은 언뜻 보기에는 근대계몽담론의 자장 안에서 매우 단순한 어조로 여성을 강제하는 내용이 전부인 듯 보이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에 미묘한 인식 차이가 포착되어 흥미롭다. 특히 근대전환기 서울의 도시화 과정 속에 음녀 담론이 형성되면서, 조선후기 여성을 바라보는 이중적 잣대가 변모되는 징후가 포착되기도 한다. 개항 이후 급격한 변화 속에 서울의 도시공간이 재편되고 이런 배경 하에 음녀 담론은 다면화되어 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본고에서는 20세기 초 간행된 『대한매일신보』¹⁶⁾ 소재 시가를 중심으로 음녀의 성격을 살펴보고 이 시기 음녀를 둘러싼 담론의 성격을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대한매일신보』에 주목하는 이유는, 전통시가 양식을 이용하여 당시 사회전반의 여러 문제들을 다룬 작품들이 대거 수록되어 있

13) 홍나영, 「조선시대 복식에 나타난 여성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81면.

14) 길진숙, 앞의 논문, 100면.

15) 이형대, 「계몽가사와 성적 욕망의 시적 인식」, 『한국문화연구』 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화연구소, 2001 ; 「풍속 개량 담론을 통해 본 근대계몽가사의 욕망과 문명의 시선」, 『고전과 해석』 창간호, 고전문학한문학회연구학회, 2006.

16) 『대한매일신보』는 박은식, 신채호 등의 민족지사가 참여한 신문으로 1904년 창간되어 1910년 국권 상실 전까지 발행되었다.

고, 그 가운데는 당대 여성의 역할을 문제 삼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본고의 논의를 통해 전통시기에서 문제되었던 부정적 여성 형상이 어떻게 지속되고 변모되어 왔는지 그 궤적도 추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근대전환기 서울의 도시화와 ‘음란’의 문제

조선 초 서울이 유교적 이상주의의 산물이자 王都로서의 상징적 공간이었다면, 조선후기 서울은 상업적 대도시의 성격이 강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¹⁷⁾ 또한 京鄕分岐의 현상이 가속화되고 서울 중심의 도시문화가 성장하면서 지방과 차별되는 특별한 공간으로 부각되었고, 서울은 한 번 가보고 싶은 공간 곧 羨望의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조선후기 한문 단편 가운데 서울에서 온 세련된 도시 남성에게 반한 시골처녀 이야기¹⁸⁾는 서울을 동경한 여성의 비극담이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처녀는 비록 시골에 살고는 있으나 花容月態의 미모뿐만 아니라 한시를 짓고 읊을 정도의 文識을 갖춘 여성이었다. 그녀가 처음 만난 남성과 선뜻 인연을 맺게 된 연유는 ‘그의 세련된 훗칠한 용모’로 인한 호감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무엇보다 그가 서울 출신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저는 본래 농가의 딸이라 으레 농가로 시집갈 것이지요. 여자의 몸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 여기서 자라, 여기서 시집을 가고 여기서 죽어 **서울 거리의 변화함과 궁궐의 아름다움을 못보고 초목과 같이 썩어질 것을 스스로 한하였습니다.** 오늘밤 인연을 맺은 후 저를 버리지 않으시면 숙원을 이루겠지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¹⁹⁾

17) 김백영, 「서울, 괴물의 얼굴에 가려진 ‘古都」, 『내일을 여는 역사』 36, 내일을 여는 역사, 2009, 187면.

18) <離情>, 이우성·임형택 역편, 『이조한문단편집』(상), 일조각, 1973, 268~270면.

19) 위의 책, 269면.

시골처녀는 서울 거리의 변화함과 궁궐의 아름다움을 한 번 보지 못하고 평생 시골구석에서 생을 마감해야 하는 운명을 한탄해 오던 차에, 서울에서 온 선비와의 인연을 통해 평소의 ‘宿願’을 이루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자를 기약하여 데려가겠다는 선비의 언약이 지켜지지 않자 결국 자살을 택했고, 이 일로 인해 선비 역시 병들어 죽고 말았다. 그런데 이야기의 서술자는 신의를 저버린 선비의 행실도 문제 삼고는 있으나, 그보다 먼저 시골처녀가 몸가짐을 조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²⁰⁾ ‘남녀의 회합은 반드시 정도를 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골처녀의 비극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남성에게 원인이 있으나, 애초부터 도시 남성과 시골 여성의 행복한 결연이란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고 정도에 어긋난 남녀 회합의 경우 몸을 허락한 여성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숙원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의지로 남성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남녀의 회합이 아닌 이상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시골처녀가 늘 동경했던 것처럼 당시 서울은 매력적인 공간이었다. 서울은 출세와富를 위한 공간이었고²¹⁾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공간이었다.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면서 농촌의 분화가 촉진되어 가난한 농민들은 도시에 모여 들어 임노동이나 장사로 생계를 영위했고,²²⁾ 농촌을 떠난 많은 流民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마땅한 생계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일 자리를 찾으며 유리걸식했다.²³⁾

19세기 여성관련 범죄를 분석한 최근 연구에서, 조선후기 급증한 여성관련 범죄가 서울의 도시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양장성이라는 사람은 본래 죽산 사람으로 서울로 상경한 이주자인데, 아내가 서울로 올라온 후 자주 음란한 행적을 드러내었다. 이에 수치와 분함을 참지 못해 재산을 버리고 하향하고자 하였으나 부인이

20) “부목자 가로되, 슬프다. 재주와 미모를 갖춘 여자로서 行露를 조심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명을 잘 마칠 수 있었겠는가” (위의 책, 270면)

21) 최기숙, 「도시, 욕망, 환멸 : 18·19세기 ‘서울’의 발견」, 『고전문학연구』 23, 한국고전문학회, 2003 참조.

22) 최완기, 『조선시대 서울의 경제생활』, 서울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1994, 20면.

23) 변주승, 「조선후기 유민정책 연구」, 『민족문화연구』 3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1, 56면.

반대하자 구타하여 죽게 하였다.²⁴⁾ 양장성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은 아내의 淫行에 대한 폭력의 결과로서, 19세기 가족 성원들의 결속이 약화되는 가운데 특히 부부간의 결속이 약화되고 이것이 곧 부인의 음행에 대한 남편과 문중의 폭력과 관련되는 양상을 잘 보여준다.²⁵⁾ 그런데 당시 간통과 같은 불륜 사건이 흔하게 일어났고 음행을 저지른 아내 또는 情夫를 살해한 사건이 『審理錄』²⁶⁾과 같은 범죄 판결서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을 보면 양장성의 사건은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발단이 ‘上京’에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양씨 부부가 상경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으나 아마도 생계를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재산을 버리고’ 하향하고자 했다는 점으로 볼 때 서울에 와서 제법 재산을 모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서울에 온 후 양장성의 아내가 자주 음행을 드러내었고 하향하자는 남편의 제안도 거부하고 계속 서울에 머물고자 한 점이다. 그녀에게 있어 서울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곳이자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곳, 따라서 떠나고 싶지 않았던 곳으로 보인다. 어찌 보면 기회의 공간이자 매력적인 공간이었던 서울이 결국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갔다고도 할 수 있다.

한편 서울은 대도시로 성장하면서 상품화폐경제의 극치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변모해갔다.

서울은 장인바치와 장사치들이 모이는 곳이다. 못 거래할 수 있는 물품은, 그 가게들이 별처럼 벌여 있고 바둑판처럼 펼쳐 있다. 남에게 손과 손가락을 파는 사람이 있고, 어깨와 등을 파는 사람도 있고, 뒷간 치는 사람도 있고, 칼을 갈아서 소 잡는 사람도 있고, **얼굴을 꾸며 몸을 파는 사람도 있으니**, 세 상에서 사고파는 것이 이처럼 극도에 달하고 있다.²⁷⁾

24) 『秋曹決獄錄』 卷三, 甲午 九月 西部童蒙梁長顯擊錚原情 (유승희, 「19세기 여성관련 범죄에 나타난 갈등양상과 사회적 특성」, 『대동문화연구』 7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1, 155면 재인용)

25) 위의 논문, 155~156면.

26) 『심리록』은 正祖가 代理聽政을 시작한 때부터 死罪 사건에 관하여 손수 내린 판결을 모은 것으로 정조 즉위 직후부터 御製 편집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23년에 편집이 완료된 책이다. (『국역 심리록』 1, 민족문화추진회, 1998, 해제 참조)

이 글은 李鈺의 <柳光億傳>의 한 대목으로, 온갖 물건이 거래되는 ‘사 고파는 것이 극도에 달한 공간으로 서울이 묘사되고 있다. 그 가운데는 얼굴을 꾸며 몸을 팔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 성의 상품화 양상이 만연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조선후기 서울에는 유흥문화가 형성되어 술과 賣淫을 영업 종목으로 하는 色酒家가 홍제원과 남대문 밖, 탑골공원 뒤, 수은동 등에 번성했다. 원래 기녀가 제공하는 각종 춤과 기악, 성악 및 성적 서비스는 궁정과 관료를 위한 것이었으나, 18세기경에는 상인과 여행인을 소비층으로 한 妓房이 출현하여 도시민의 사교장이자 일종의 복합적 유흥 공간으로 이용되었다.²⁸⁾ 특히 색주가는 서울뿐만 아니라 상선이 모여드는 항구, 광산이 있는 곳, 길가의 주막, 읍촌의 장터에까지 널리 퍼져 있었다고 전해 지는데,²⁹⁾ 나그네들이 하룻밤을 묵으며 술이나 음식을 사먹을 수 있는 주막이 일반화된 것이 화폐통용이 활발해진 이후라고 할 때 조선후기에 색주가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³⁰⁾ <우부가>에서 꿈생원이 대로 변의 색주가를 전전하고³¹⁾ 꿩생원이 조카를 색주가에 팔아넘기는 행태³²⁾ 라든가 <용부가>의 ‘저 부안’이 색주거나 해불까 궁리하는 모습³³⁾을 보면 당시 색주가가 도시공간에 널리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柳晩恭의 『歲時風謠』에서도 조선후기 서울의 색주거나 娼家の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³⁴⁾ 사실시조를 통해서도 서울 인근 나루에 각지에서 올라온 뱃

27) 이옥, <유광역전>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 『완역 이옥전집』 2, 휴머니스트, 2009, 350면)

28) 고동환, 『조선시대 서울도시사』, 태학사, 2007, 203면.

29) 이능화, 이재근 옮김, 『조선해어화사』, 동문선, 1992, 450면.

30) 홍성철, 『유곽의 역사』, 페이퍼로드, 2007, 26면.

31) “大道邊의 色酒家며 노름판의 분돈 주기” <우부편>(『초당문답가』)

32) “누의 同生 죽하팔을 色酒家로 換賣하세” <우부편>

33) “兩班自揚 모도 흐며 色酒家나 흐여 불가” <용부편>

34) “술칭 앞에 술 파는 여자가 낭랑아가씨라 호를 하고/ 얼굴을 대하면 거짓 높이고 호협한 남자를 비웃는다/ 삼시간에 예쁜 색 보는 것만 다행하지/ 술 맛이 차 맛 같은 것은 꺼리지 않는다 <젊은 색시 술집을 색주가라고 한다> (當墟姬僭号娘娘 對面陽尊晒俠郎 惟幸靈時看艷色 不嫌酒味似茶湯 <少姬酒肆曰色酒家>)” (유만공, 임기중 역주, 『우리 세시풍속의 노래』, 집문당, 1993, 122면, 밑줄 필자) “종루에서 서쪽으로 가는 데는 길이 넓으니/ 광화문 남쪽이 가장 넓구나/ 곧바로 소나무 다리를 향하매 호협한 젊은이가 많으니/ 기생집이 육조 앞에 있는 것을 알겠도다(鐘樓西去路如天 光化門南最豁然 直向松橋多俠少 娼家知在六曹前)” (유만공, 110면, 밑줄 필자)

사람들을 대상으로 몸을 팔았던 幕娼의 존재도 확인할 수 있다.³⁵⁾ 이처럼 조선후기 서울의 도시공간에는 성을 거래하는 장소가 공공연히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후기 매음을 하는 여성들이 특별한 인신의 구속 없이 일반인과 雜居하면서 생활한 것과는 달리, 개항과 함께 도시공간의 하나로 형성된 ‘遊廓’은 구획된 성매매 공간으로 특화된 공간이었다. 일제는 군대와 거류민에게 안전한 성을 공급하기 위해 성 관리 시스템을 통한 감시와 통제가 필요했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로 유곽을 설치하였다.³⁶⁾ 유곽은 이미 1902년에 부산, 원산 등지부터 시작하여 서울에는 1904년 新町에 처음 들어섰다.³⁷⁾ 20세기 公娼으로 표현되는 공식화된 매춘은 경성 뿐 아니라 한반도 도시 내 하나의 사회현상이었고, 유곽은 도시인구의 크기에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서울의 경우 도시거주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매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수요도 늘어나 도시 곳곳에서 밀매음을 하는 사창이 번성하였다. 일제는 이들을 모두 유곽으로 흡수시켰지만 유곽의 크기는 한정되었기 때문에 신정 유곽 좌우로 또 다른 새로운 유곽을 신설, 유곽지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³⁸⁾

京城의 今日됨이 倫敦 巴里에는 못미치나, 우리 半島에는 이보다 더 華麗하며 이보다 더 壯觀되는 地는 다시 업슬지라. 아모리 黃金덩어리가 東倉西庫에 잇슨들 쓸바 處所가 업는 以上에야 비록 幸運兒인들 엇지 하리오. 그러나 京城의 華麗는 날로 文明的 大都市의 色彩를 닳타니어 가는中, 進하얀 自然의 美를 奪호는바 今日이다. 그 奇함도 더하여가며 異함도 더하여가는 今日인즉, 幸運兒 아니라 富에 싸이어 잇는 者에게 向하야는 이만한 得意가 업슬

35) “各道 各船이 다 올라올 제 商賈 沙工이 다 올라 왔네/ 助江 석골 幕娼드리 비마다 츠즐 제 시니놈의 먼정이와 龍山 三浦 당도라며 平安道 獨大船에 康津 海南 竹船들과 靈山 三嘉 地土船과 메옥 실은 濟州비와 소곰 실은 瓮津비드리 스스를 올라들 갈 제/ 어디서 各津놈의 나로비아 썩어나 볼 줄 이스라” (『청구영언』(육당본) 727면 작품, 밑줄 필자)

36) 유승희, 「근대 경성 내 유곽지대의 형성과 동부지역 도시화」, 『역사와 경계』 82, 부산경남사학회, 2012, 138~143면.

37) 강정숙, 「대한제국-일제 초기 서울의 매춘업과 공창 제도의 도입」, 『서울학연구』 11,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1998, 219면.

38) 유승희, 앞의 논문, 2012, 159~160면.

지라. 媚를 賣호야 遊蕩子弟의 情을 求하는 美人도 여기 잇스며, 樂을 興호
여써 風流郎의 發狂을 促호난 風流場도 여기 잇스즉, 옛지 京城을 稱호야
幸運兒의 樂土라 흠이 不可호라.³⁹⁾

유곽과 더불어 서울에는 도시유흥을 부추기는 장소도 등장하게 되는데, 1910년대 서울의 도시풍경을 소개한 위의 글에는 아양을 떨며 遊蕩子弟의 마음을 구하는 미인, 풍류랑의 발광을 재촉하는 풍류장 등이 포착되어 있다. 화려함이 날로 ‘문명적 대도시’의 색채를 나타내어 가는 가운데 서울에는 도시유흥 공간이 만연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도시유흥 공간 가운데 남녀가 모이는 연극장은 傷風敗俗의 온상지이자 무질서와 욕망의 위험한 공간으로 인식되었다.⁴⁰⁾ 協律社의 경우 요리점과 연계하여 새로운 밤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하여 1908년 원각사로 재개장된 이후에는 새벽까지 이어지는 상층사회의 밤 문화를 본격적으로 주도했다. 이러한 극장의 상풍패속에 대한 비판을 두고, 표면적으로는 사회적인 풍기문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었으나 근본적으로는 극장이라는 하나의 공간 안에 섞여 모여 있는 관객 대중의 실체와 그 혼종성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⁴¹⁾ 그러나 극장의 여성 관객들은 대부분 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은근자나 삼패 등이었고 극장은 가무나 매음을 생계로 하는 여성들이 공개적으로 남성들과 어울리는 장소로 비난받기 일쑤였다.

이러한 서울의 유흥문화를 가속화한 중요한 요인은 바로 전기의 보급이었다. 전기가 보급되면서 밤에도 낮처럼 활동이 편리해지고 도시의 밤 문화가 형성될 수 있었다.

www.kci.go.kr

39) “幸運兒의 樂土인 京城”, 「京城의 今日」, 『半島詩論』, 제2권 제10호, 1918, 32-33면.

40) 우수진, 『한국 근대연극의 형성』, 푸른사상, 2011, 73면.

41) 위의 책, 51면, 72~73면 참조.

서울이라는 거대한 촌락에 꼭 들어찬 낮은 회색지붕 위로 전선줄이 팽팽히 늘어져 있고 꼭대기에 사기 부품이 달린 전신주들이 우뚝 솟아있는 모습을 본다면, 자신의 눈을 의심할 것이다... 베이징이나 도쿄, 방콕이나 상하이 같은 어떤 대도시도 서울처럼 전신과 전화, 전차와 전기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 곳은 없다... **밤이면 눈부신 가로등이 서울의 거대한 촌락에 뻑뻑하게 늘어선 지붕들을 밝혀주고 있었다.**⁴²⁾

○ 먼 시골에 심장하야 농스하던 늙은이가 서울구경 하라 하고 평성 벌너 올라오니 불만흔 일 무수하다... **거리마다 밤중에도 좌우동측 명랑하다** 어둔 방에 잠든 인성 불분동서 혼미하니 어느 때나 꿈을 찌여 이와 갖치 붉어질소 **신세계가** 되엇고나⁴³⁾

첫 번째 인용문은 1901년 독일 기자 겐테의 글로 전신, 전화, 전차, 전기를 모두 갖춘 아시아 대도시로서의 서울의 모습에 감탄하는 대목이고, 두 번째 인용문은 『대한매일신보』 <시스평론>에 소개된 일종의 ‘시골영감 서울구경’의 한 부분으로 시골영감이 전등 불빛이 화려한 서울의 야경에 놀라는 대목이다. 전등불빛은 어떤 근대문물보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었고, 신생활을 창조한 기적으로 포장되어 근대에 대한 강렬한 매혹을 불러일으켰다.⁴⁴⁾ 시골영감이 ‘신세계’라고 표현한 것처럼 도시의 밤은 분명 새로운 세상임에 틀림없었다.

20세기 초 이러한 서울의 변화와 더불어 풍기문란을 염려하는 담론들이 신문, 잡지에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특히 여성의 ‘음란’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었다. 과도하리만큼 반복되는 음녀에 대한 비난은 이 시기의 사회·문화적 변동을 대변하는 것일 수 있는데, 다음 장에서는 음녀를 둘러싼 담론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42) 지그프리트 겐테, 권영경 역, 『독일인 겐테가 본 신선한 나라 조선, 1901』, 책과함께, 2007, 198~199면.

43) <시스평론>(1908. 7. 3) (강명관·고미숙 편, 『근대개몽기 시가 자료집』 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0. 이하 각주에 소개되는 <시스평론>은 날짜만 제시하고 자료 출처의 서지사항은 생략하기로 한다)

44) 노형석, 『한국 근대사의 풍경』, 생각의 나무, 2004, 44면.

3. 『대한매일신보』 소재 시가에 나타난 음녀의 성격

19세기 유행한 교훈가사집 『草堂問答歌』는 여러 편의 이본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 이본 가운데는 20세기 초에 활자본으로 간행된 경우도 있는데 『片片奇談警世歌』가 1908년 보문사에서, 『萬古奇談處世歌』가 1914년 신구서림에서 鉛活字로 간행된 예가 그것이다. 이들 이본은 근대적 출판 환경 안에서 활자본으로 간행되면서 독특한 제목⁴⁵⁾ 하에 독자층의 흥미와 관심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텍스트화가 이루어진 측면은 있으나⁴⁶⁾, 여타의 『초당문답가』의 이본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유교적 실천 윤리를 제시하고 있어 20세기 초까지도 전통적 교훈담론이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 가운데 『편편기담경세가』에는 다른 이본에는 없는 <녀즈교육편>이 독립적 편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남녀권리가 동등한 ‘20세기 좋은 시대’가 온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성에게는 여전히 ‘婦德이 제일’임을 강조하고 針線紡績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알팍한 일어 실력으로 남성을 下視하는 여성을 지적한 점이 주목된다.⁴⁷⁾ 이는 언뜻 보기에 20세기에 들어서도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규범상이 지속되고 있는 듯하나, 곰곰이 들여다보면 오히려 이 시대는 더 이상 여성에게 부덕이 제일인 시대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즉 이전과는 달라진 세상을 목도하면서 변화된 세태를 불편해 하는 서술자의 목소리가 느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변화된 시대에 여성들의 행태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여자패풍’이라는 제목으로 『대한매일신보』 <시스평론>(1909. 8. 17)에 소개된 작품에는 20세기 초 서울의 온갖 부정적인 여성 형상이 총망라되어 있다. 첫째 연에서 ‘전국의 女子界를 살펴본 즉 구습을

45) 『편편기담경세가』는 片片마다 奇談으로 警世한다는 뜻이고, 『만고기담처세가』는 萬古의 奇談으로 處世를 말한다 뜻이다.

46) 육민수, 『조선후기 가사문학의 담론 양상』, 보고사, 2009, 252면.

47) “녀즈라 흐는것슨 부덕이 데일이라/ 이십세기 조흔시대 남녀권리 동등되야/ 녀즈교육 실시 하고 녀즈교대 빈번하드/ 필문장안 억만가에 녀즈학교 드문드문/ 근일녀즈 불족시면 긴적삼 통치마에/ 우산쓰고 양혜신코 머리틀어 북상투에/ 침선방적 기치안코 학식덕행 전혀업시/ 일어머더 아는체로 여간남즈 하시한다” <녀즈교육편>(『편편기담경세가』, 밑줄 필자)

못 버리고 쾌악한 자가 不少하다고 언급한 것처럼⁴⁸⁾ 여러 부류의 쾌악녀들이 등장한다. 서문 밖 매음녀, 북촌의 완고 여인네, 서촌의 완패 여인네, 남문 밖 간교 여인네, 동문 안 곰보 여인네, 낙산의 완악 여인네 등 총 여섯 명의 여성들은 하나같이 문제적 인물들이다. 그 가운데 세 명의 여성 즉, 家長에게 노예같이 푸대접받으면서 자녀들에게는 교육을 빌미로 욕을 퍼붓는 여성⁴⁹⁾, 친정에서 받아온 재산을 핑계로 남편을 천대하는 여성⁵⁰⁾, 남편을 나이 많다고 박대하다 결국 쫓아내버린 여성⁵¹⁾ 등은 그야말로 쾌악한 행동을 저지른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나머지 세 명은 모두 외간 남자를 유혹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는 여성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다. 저녁만 되면 연희장(연극장)을 왕래하며 엉덩이춤 추면서 활개 치는 여성⁵²⁾, 외국인만 보면 기뻐하며 손잡는 여성⁵³⁾, 외국인 남편에 자식까지 있는데도 국적 불문하고 외간 남자를 유혹하는 여성⁵⁴⁾ 등은 정상적인 남녀관계 또는 부부관계와는 거리가 먼 인물들이다.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음란한 여성들이 『대한매일신보』에는 수없이 등장하는데, 이를 곰곰이 따져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

-
- 48) “○ 우리 대한 전국 안에 너즈계를 숲허본즉 몇천 년을 갖춧다가 기명풍기 드러온 후 너즈들도 남즈긋치 사회학교 풍스허며 총명지질 확츄허야 기명됨이 가허거늘 구습 그저 못 버리고 쾌악한 자 불쇼허니 한번 비평 허여 볼까”
- 49) “○ 북촌으로 도라드니 엇던 완고 녀인네는 가장의겐 노래긋치 쓰들니고 뽀 마지막머 즈녀들을 디허서는 엄절교훈 훈답시고 비랑방이 각쟁이니 경을 칠 놈 주리 틀 놈 물퍼붓 듯 욕설허야 가등규범 문란허니 그 구습도 가통허고”
- 50) “○ 서촌으로 도라드니 엇던 완패 녀인네는 친정에서 엇은 천량 태산이나 써온 드시 그 남편을 하인처럼 드러오라 나가거라 천디박디 즈심헌 중 상등디접 욕설이오 슈틀니면 상투잡이 가진 포학 무수허니 그 거동이 가통허고”
- 51) “○ 동문 안을 도라드니 엇던 곰보 녀인네는 텃등비필 제 남편을 나히 만타 무식허다 이리더리 칭탁허고 구지박지 축출허야 원산희쥬 교중으로 걸긋긋치 든니는 양 춤여 볼 수 업건마는 풍시회기 아니허니 그 형위도 가통허고”
- 52) “○ 서문 밖글 도라드니 엇던 매음 녀인네는 제가 ㅈ장 기명헌 테 반양복에 안경 쓰고 연희장만 왕리한다 저녁 먹고 썩 나서면 업는 모양 이썩 내며 궁둥춤과 활기 친들 누가 저를 논 썩 보나 좌우고춤 허는 모양 그 형습도 가통허고”
- 53) “○ 남문 밖글 도라드니 엇던 간교 녀인네는 본국정신 반덤 업시 복식부터 기랑허고 외국인을 상디허면 언제 보던 님이라고 혼연허게 손 잡으며 제 동포를 디힐 제는 니외지별 분명허야 닛 가리고 도라서니 그 심스가 가통허고”
- 54) “○ 락산으로 도라드니 엇던 완악 녀인네는 외국인께 출가허야 유즈싱녀 잘 살다가 썩 무엇이 부족던지 소리 젓고 횡횡허 제 하우아유 스요나라 서슴잔코 내던지머 한인이나 외인이나 흙부르다 집어세니 그 형식도 가통허다”

3.1. 외모를 꾸미는 여성 : 사치음탕의 소비적 인물

읍녀로 지목되는 여성들의 특징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진한 화장과 사치스런 옷차림이다. 조선시대는 검소함을 미덕으로 하는 사회이념과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사대부가의 여성들에게는 진한 화장을 금하게 하고 기녀와 같은 특수한 직업을 가진 여성들을 중심으로 화려한 화장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조선시대 화장법은 여염집 여성의 얇은 화장과 기생의 粉黛化粧으로 이원화되어 발전하였다.⁵⁵⁾ 여염집 여성들이 평상시에 진한 분대화장을 하면 기녀로 오인 받거나 행실이 반듯하지 못한 여성으로 취급 받았고,⁵⁶⁾ 화장 전과 화장 후의 모습이 확연히 다르면 ‘冶容’이라 하여 경멸을 받기도 했다.⁵⁷⁾

그런데 20세기 초에는 화장과 의복이 여성들의 도덕성을 가늠하는 주요 잣대가 되어⁵⁸⁾ 모든 여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즉 화장을 하고 외모를 꾸민 여성은 모두 읍녀로 지목되었던 것이다.

○ 오부 안에 밀매읍녀를 비밀도사 하지 말고 연회장에 드러가서 가진 단장 혼 계집을 포승으로 목거다가 지엄하게 사실하면 음란함이 감홀 텐디 시약심상 그져 두니 경찰실슈 이 아난가⁵⁹⁾

○ 녀즈계로 말홀진디 기혁호는 이 시대에 아모조록 공부호야 동등권을 회복호고 남즈들과 병력호야 문명 진보 못호고서 유두분면 풍리쥬의 요리조리 모양내고 여간 패물 잡혀다가 연회장에 판이 나고⁶⁰⁾

55) 이행화·박옥련, 앞의 논문, 296면.

56) 홍나영, 앞의 논문, 93면.

57) 이행화·박옥련, 앞의 논문, 305면.

58) 최혜진, 「개화기 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몸 담론」, 『어문연구』 68, 어문연구학회, 2011, 382면.

59) <시스평론>(1908. 12. 30)

60) <시스평론>(1909. 5. 8)

○ **릉라금수 고흔 옷을 밋시 잇게 녀은 후에** 연극장에 드러가서 **분되스 박을 너두르며** 낙시눈을 썩가지고 **서방질에 즈미 나서 집안일은 불고하고 음탕심만 텅중호여** 풍화소관 불측호니 더 **음탕호 환향년들** 잡어드려 더령호고⁶¹⁾

○ 장안화류 란만호고 고루거각 뉘 붉은디 저 사니는 이의 가고 새 랑군이 또 왔고나 **모양내는 미인들이 새 랑군을 결련코져** 가진 티도 다 부리네⁶²⁾

서울 五部 안의 밀매음녀를 비밀 조사하지 말고 아예 연극장에 들어가 갖은 단장을 한 여성들만 잡아오면 음란함이 줄어들 것이라고 한 데서 여성의 외모 치장이 바로 매음녀와 직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름 바른 머리와 분 바른 얼굴(油頭粉面), 명주로 짠 비단옷(綾羅錦繡), 질은 화장과 잘 차려입은 옷차림(濃粧盛服) 등은 화려하게 치장한 여성들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으로 흔히 기녀를 연상시켜 왔다. 여기서도 유두분면에 능라금수를 입은 여성들은 풍기문란의 온상인 연극장을 드나들며 재산을 탕진하고 ‘서방질’에 재미나서 집안일은 돌보지 않는 음탕심만 가득한 ‘환향년’으로 취급받고 있다. ‘粉黛冶容⁶³⁾’으로 모양낸 화류계의 미인들이 새 낭군과 결연하고자 온갖 교태를 부리는 행태 역시 비난받고 있다.

○ 부인회의 회원들이 영웅호걸 누가 낫나 부인들의 의무로다 박토에서 거두는 것 못된 곡식 이 아닌가 즈고 란신적자들이 그 어미의 죄 아닌가 **스치음탕 호지 말고** 열심으로 비양호야 당연권리 차져 보소⁶⁴⁾

○ 돌도 밝고 봄도 왔네 가덩간에 부녀들이 **사치음탕 호지 말고** 현숙정렬 본받으며 즈녀교육 열심호고 치산범절 근간호야 가도홍왕 호라거든 봄과 궂치 화창호고 돌과 궂치 원만호소⁶⁵⁾

61) <시스평론>(1910. 3. 3)

62) <시스평론>(1909. 6. 29)

63) <시스평론>(1909. 6. 29)의 국한문판에는 ‘모양내는 미인들이’ ‘粉黛冶容 美人들’로 되어 있다.

64) <시스평론>(1909. 1. 31)

○ 하우불이 부녀들은 전일악습 다 버리고 학문지식 연구해야 동등권을 회복하며 가정보범 되라 하고 무수권고 하였건만 그 전보다 우심하게 **샤치방탕** **홀 썬더러 추호 형실 허다하니** 우이송경 이 아닌가⁶⁶⁾

○ 가명간에 부녀들은 즈녀교육 무심하고 **의복샤치 건들거려** 연희장만 추축하니 방탕홀스 더 심장을 걸음땀이 헌신긋치 오늘 너로 버리쇼셔⁶⁷⁾

○ **복상토**에 **반양복**을 선명하게 츠리고서 일어마디 지저구며 외국정인 전별홀 제 슨흔 괴식 나타내니 가녀학도 형용일세⁶⁸⁾

유두분면에 능라금수로 외모를 꾸미는 여성은 곧 사치하는 여성이고, 사치하는 여성은 곧 음탕한 여성으로 인식된다. 위의 인용문에서 ‘사치’와 ‘음탕’이 결합된 ‘사치음탕’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데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賢淑貞烈, 治産凡節, 家道興旺, 子女教育 등에는 전혀 무심한 채 연극장만 들락거리며 추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당시 여성의 소비는 그 자체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고⁶⁹⁾ 얼굴 단장과 의복 차례에 골몰하는 여성들은 근대국가의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로 평가되었던⁷⁰⁾ 사정과 연관된다.

또한 ‘복상투’⁷¹⁾의 헤어스타일이나 ‘반양복’의 옷차림으로 마치 여학도처럼 행세하는 여성 역시 비난의 대상이었다. 당시 여성들은 자율적으로 서양 복식을 수용하여, 바로 양장을 착용하기 보다는 전통 복식인 치마, 저고리에 서구적인 헤어스타일을 하고 슌-핸드백을 착용하거나 슌을 두르고 장갑을 착용하거나 한복 위에 코트를 걸쳤는데, 이와 같이 전통 복식에 서양 복식을 혼용하여 착용한 복장을 ‘반양복’이라 불렀다.⁷²⁾ 반양복은 새로움의

65) <시스평론>(1909. 2. 5)

66) <시스평론>(1909. 3. 20)

67) <시스평론>(1908. 12. 31)

68) <시스단평>(1910. 7. 25)

69) 박숙자, 「1920년대 사생활의 공론화와 젠더화」, 『한국근대문학연구』 7, 한국근대문학회, 2006, 189면.

70) 홍인숙, 『근대계몽기 여성 담론』, 해안, 2009, 106~107면.

71) ‘복상투’란 함부로 끌어올려 뭉치 놓은 여자의 머리모양을 말한다.

상징이었고 당시 새로운 패션으로 각광받았던 듯하나 음녀로 지목된 여성들은 여전히 비난의 맥락 속에서 인식되고 있었다. 여기에는 당시 외래문화 접촉에 대한 거부감도 투영된 듯 보이는데 몸치장이나 말투, 행동거지에 있어 외래의 것을 선호하며 무분별하게 휩쓸려 가는 상황을 개탄하는 인식이 포착되기도 한다. 이는 또한 당시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유희에 약한 존재이자 유행에 강한 호기심과 충동을 가진 존재로 인식되어 도시의 화려한 물질문명에 홀리기 쉬운 주체로 규정되었던⁷³⁾ 사정과의 연관된다. 특히 음란한 여성은 도시공간에서 소비를 즐기고 상품을 매개로 한 유행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던 듯하다.

3.2. 거리로 나온 여성 : 구경 혹은 방황하는 도시민

계녀가류 규방가사에서 쉽게 확인되듯⁷⁴⁾ 조선시대 여성은 외부 출입이 규제되었다. 『초당문답가』의 <부인잠>에는 여성이 ‘문 밖에 나서는’ 행위를 경계하면서 만일 문 밖에 한 번 나(서)면 아침나절의 아기씨가 순식간에 ‘이년 저년’으로 취급되고 좋은 배필도 얻을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⁷⁵⁾ 이러한 여성의 생활규제는 內外法의 시행에서 비롯되는데, 내외법이란 여성이 임의로 문 밖 출입을 할 수 없고 가까운 친척 이외의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남녀 간의 자유로운 접촉을 금하는 행동규제법이었다. 이는 유교사회에서 정절을 여성이 지켜야 할 최우선의 덕목으로 간주하고 여성이 문 밖 출입 및 외부인과의 접촉이 자유로우면 그만큼 失節의 위험이 높다는 인식에서 연유한다.⁷⁶⁾

개항 이후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도 실제로 1897년, 1900년, 1901년 서

72) 공승연, 「근대 기생 복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34면.

73) 조희진, 「근대적 복식 유행의 출현과 사회적 수용: 식민지시기 언론 매체 기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70~171면.

74) “아희야 드러바라 또 혼말 이르러라/ 이웃제 왕니홀제 무름업시 가지말고/ 급훈일 아니거든 밤으로 왕니말라/ 남의집에 가거들랑 더욱조심 허여서라” <계녀가>

75) “門 밖고 혼 번 나면 그 身勢가 무어신고/ 아츨나잘 아기씨가 相關업시 니년 저년/ 兩班 남편 엇즈 하면 限極 되어 안으셔요/ 常놈 셔방 흐즈 하면 待接허여 家直이요” <부인잠>

76) 한국고문서학회 편, 『조선시대 생활사』, 역사비평사, 1996, 120~121면.

양인의 시선에 포착된 서울의 여성들은 여전히 외출이 자유롭지 못했고 외출할 경우는 반드시 장옷을 뒤집어써야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⁷⁷⁾ 이방인이 보기에 넓은 소매가 머리 위에 달려 있는 장옷은 그 모양새가 괴이했고, 걸을 때 얼굴과 상체 주위로 소매가 펄럭거려 ‘무시무시한 마법의 도롱이’로 묘사되기도 했다.⁷⁸⁾ 그런데 이러한 장옷을 벗어던지고 여성들도 당당하게 밖으로 나와 활동해야 한다는 담론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 부녀모양 볼썽시면 룡라주의 치레하고 삼복 중에 출입히도 **장옷소리 팔낭팔낭 눈내 낚교 얼골 가려 너외지별 분명하니 더 구습이 그져 있다**⁷⁹⁾

○ 도라왔네 도라왔네 활동시디가 도라왔네… **늙은 부인 절른 처즈 장옷 벗고 활동하여** 레비당에 간다던지 학교에 간다던지 시세 알고 학문 비와 나 먹을 일 내가 **호소 남편의 덕 밋지 말고 공것 먹을 생각 말소**⁸⁰⁾

○ **규중에서 침선하던 전일구습 폐지하고** 외국제도 의방하여 남녀동등 교육하니 대한풍속 변히고나 봄이 가면 여름 온다⁸¹⁾

77) “조선의 여인들은 이상한 장옷을 쓰고 다니는데 서울에서는 이 모습이 특이하다. 이 장옷은 ‘목’이 달린 남자들의 비단 코트인데 이를 머리에 쓰고 눈만 보이도록 소매를 귀 옆으로 흘러내리도록 한다.” (이사벨라 비숍, 신복룡 역주,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 집문당, 2006, 54~55면, 밑줄 필자) “상류 계층 여인들은 장옷으로 몸을 가리지 않고는 길거리에 나설 수 없다. 이 관습은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서울에서는 지난 몇 달 전까지도 매우 엄격하게 지켜져서, 상류 계층의 어느 여인도 장옷을 걸쳐야만 길거리에 나올 수 있었다. 서울에는 한낮의 도시 거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인들이 많다고 한다. 장옷은 서울의 지체 높은 부인들은 물론 중류 계층의 여인들도 걸친다.” (제이콥 로버트 무스, 문무홍 외 역, 『1900, 조선에 살다』, 푸른역사, 2008, 160~161면, 밑줄 필자)

78) “서울에서 여성들이 공공장소로 외출하는 일은 많은 위험이 따르는 모험인 것 같다. 외출하는 경우 우아하고 작은 여성들의 몸매를 숨기는 불품없는 옷더미에 마지막으로 소매가 머리 위에 달려 있는 초록색 망토(장옷)를 걸친다. 하얀 옷깃이 달려 있는 넓고 텅 빈 소매가 얼굴과 상체 주변에서 펄럭이면 마치 몸을 가리는 무시무시한 마법의 도롱이(우의) 같다.” (지그프리트 겐테, 앞의 책, 207~208면, 밑줄 필자)

79) <시스평론>(1907. 7. 7)
 80) <활동가>(1907. 8. 22)
 81) <시스평론>(1908. 5. 1)

○ **안방 속에 드러안져 의식에만 종스타가 자유권을 얻었스니** 대장부와 동등이라 신학문만 성취하면 무슨 스업 못홀손가 이 시디가 어느 때뇨… 산골쳐녀 가련하다 문밖일도 모르면서 정구지역 골몰하야 수족까지 다 터지니 국축하게 일평성을 토실 속에 늙고나 이 시디가 어느 썸뇨⁸²⁾

삼복더위에도 여전히 얼굴을 가리고 장옷을 쓰고 다니는 행태는 이제는 버려야 할 ‘舊習’으로 지목되고 있다. 더 이상 內外之別이 필요 없는 ‘활동시대’가 도래했음을 강조하면서 늙은 부인 젊은 처자 모두 장옷을 벗고 활동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더구나 ‘자신이 먹을 것은 자기가 챙기고 남편의 덕을 믿지 말라’고 한 대목에서는, 여성을 더 이상 三從之道의 틀에 갇히지 않은 독립된 개인으로 보는 인식이 드러나기도 한다. 안방 속에 들어앉아衣食에만 종사하다 비로소 자유권을 얻었으니 규중에 갇혀 침선만 하던 구습 역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시대에 문 밖 일도 모르고 아직도 井臼之役に 골몰하여 수족이 다 터지도록 일하며 평생을 土室 속에서 늙어가는 산골쳐녀를 애처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그런데 이처럼 여성의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것과는 달리 정작 문 밖으로 나와 ‘거리로 나온’ 여성에 대한 시선은 그리 곱지 못한 경우가 많다. 도시공간의 근대적 특징은 거리에 사람이 몰려나온다는 점, 정확히 말해 사회가 사람을 거리로 내몬다는 점인데,⁸³⁾ 일을 위해서 혹은 물건을 사고팔기 위해서가 아니라도 아무 목적 없이 구경하러 나오는 사람들로 거리는 항상 붐볐다. 도시공간에서 街頭, 즉 길거리는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일 뿐 아니라 눈요기를 하는 공간이었고 다른 근대인들을 관찰하는 공간⁸⁴⁾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리에 등장한 여성은 거리를 ‘방황하는’ 존재로 비취졌고 대개 성적 욕망을 품고 있는 인물로 묘사되었다.

82) <시스평론>(1908. 7. 1)

83) 김영근, 「일제하 식민지적 근대성의 한 특징: 경성에서의 도시 경험을 중심으로」, 『사와 역사』 57, 한국사회사학회, 2000, 32~33면.

84) 조희진, 앞의 논문, 72면.

○ 방석머리 반양복에 가즌 뱃시 다 내고서 **대로상에 방황홀 제** 그 형식이
괴이하니 가녀학도 의심 업다 더것도 원숭이⁸⁵⁾

○ 매음녀가 양복 입고 기명부녀 효측하야 **대로상에 왕리기로** 호탕남즈
쭈축하야 은근희위 부정하니 더 녀즈가 가증이오⁸⁶⁾

○ 제집 사니 잇슬 제는 ㄱ장정절 직히는 테 렬녀모양 외식타가 **틈을 틈서**
문에 나면 방탕남즈 쭈축하야 망측희위 허다하니 더 박귀가 가증이라⁸⁷⁾

○ 데룩요물 무엇인가 아롱아롱 털단장에 **아장아장** 걸어가며 이 놈 더 놈
슈컷 차자 싸든니는 더 **암뎡은 음탕녀즈** 그 희골을 제 어디서 엇어 쓰고 형
음하며 변화하니 이 칼 한번 시험홀가⁸⁸⁾

○ 음녀들아 들어보쇼 강덩칙임 엇더키에 즈녀교육 등기호고 살님사리 꿈
뵈긴가 모양 내고 **출입홀 제 활기치며** 가는 거동 어리석은 생각에는 양양즈
득 흥 듯하니 놈 웃는 줄 네 아느냐⁸⁹⁾

○ 유두분면 식장옷에 식집 갓간 새식시가 털도 아니 버섯논더 **살님에는**
베들이오 구경에는 놀치로다 진고기가 도타 호고 간들간들 **왕리타가** 야만
의계 봉욕하니 더 망골을 엇지 홀소⁹⁰⁾

방석머리와 반양복 차림으로 온갖 뱃시를 다 내고 대로상에 나온 여성은
그저 ‘방황하는’ 존재일 따름이다. 대로상에 왕래하는 매음녀는 가증스럽고,
정절을 지키는 척하다 틈을 타서 문 밖에만 나서면 방탕한 남자를 쫓아다
니는 여성 역시 가증스럽다. 아장아장 걸어가며 이 놈 저 놈 수컷을 찾아

85) <시스단평>(1910. 7. 28)

86) <시스평론>(1908. 2. 15)

87) <시스평론>(1908. 10. 3)

88) <시스평론>(1909. 2. 11)

89) <시스평론>(1908. 12. 29)

90) <시스평론>(1908. 10. 17)

‘싸다니는’ 여성은 妖物임에 틀림없고, 살림살이 팽개치고 밖으로 다니며 ‘활개 치는’ 음녀들은 남의 비웃음을 사기에 족하다. 그런가 하면 살림에는 배돌이⁹¹⁾면서 구경에는 날치 같은 새색시는 진고개가 좋다는 소문에 그곳을 왕래하다 逢辱하는 ‘亡骨’⁹²⁾로 묘사된다.

1901년 서울 진고개의 일본 상점가에 600개의 전등이 가설된 후 방울꽃 모양의 아름다운 가로등, 다양한 상품들과 형형색색의 네온사인 앞에 사람들은 낮을 잃었고 진고개는 ‘전등이 켜진 뒤 반드시 보아야 할 명소’로 각인되었다. 실제로 저녁나절이면 뚜렷한 목적 없이 진고개와 本町の 상점가를 배회하는 풍습이 형성되었다고 한다.⁹³⁾ 노골적으로 남성을 유혹하던 앞의 음녀들과는 달리, 새색시는 이렇게 화려하다고 소문난 진고개를 그저 구경하려고 거리에 나왔던 듯 보인다. 그러나 거리에 나섰다는 것부터 문제였고 게다가 ‘유두분면’에 ‘색장옷’⁹⁴⁾까지 차려입고 걸음걸이가 간들간들한 것은 더욱 문제였다. 이러한 새색시의 과도한 몸치장과 간들간들한 걸음걸이는 음녀를 연상하게 하고, 이런 점이 결국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외간 남자와의 접촉을 야기했을 수 있다는 인식이 근저에 깔려 있는 듯 보인다. 어쩌면 구경 다니기 좋아했던 새색시는 볼거리 많은 도시의 거리를 거닐었던 도시민이었을 따름이지만, 집안일을 돌보지 않고 밖으로 다니는 행태를 곱지 않게 바라보는 남성 시각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근대계몽담론 안에서 여성의 문 밖 출입에 대한 미묘한 인식 차이는, ‘貞烈者’는 출입을 허용하고 ‘淫亂者’는 가둬 두자는 이분법적 발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91) ‘배돌이’란 가까이하지 않고 피하여 딴 데로 도는 사람을 말한다. 속담 중에 ‘먹는 데는 감돌이 일에는 배돌이’라는 말이 있다.

92) ‘망골’이란 ‘아주 주책없는 사람’의 낮은 말이다.

93) 노형석, 앞의 책, 45-45면, 231면.

94) ‘색장옷’이나 ‘비단장옷’은 금띠를 두르거나 화려하게 장식한 세련된 스타일로, 얼굴을 가리기 위함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돋보이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짐작된다. (“○ 식장옷에 금띠 띠니 은근즈가 이 아닌가 너공범절 전폐하고 방탕즈데 후릴 적에 동서분주 왕리하니 그 테격이 데일 뽀테 <시스평론>(1908. 7. 31, 밀줄 필자) “○ 만호장안 대로상에 비단장옷 쏜 찢고 나 외씨보션 주뢰치마 형뽕형뽕 모양내니 간세비의 티도로다 네가 뉘 집 쫄년이나” <시스단평>(1910. 7. 27, 밀줄 필자))

○ 서양에는 부인들이 남즈긋치 출입흐며 벼슬쫓쳐 꺾치 흐나 동양부인 가
 뒤두니 엇지 그리 상반흐가 두 가지를 참작컨디 정렬자는 출입흐고 음란자
 는 가뒤들 스⁹⁵⁾

이러한 인식은 여전히 여성을 貞/淫으로 이분하는 전통적 담론이 작동한
 결과이겠으나, 예전에 정숙한 부인은 규중 안에 갇혀 침선방적에만 힘쓰고
 기녀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남성들과 접촉하며 활동할 수 있었던 상황이 역
 전되어 있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즉 정숙한 여성은 근대국가의 일원으
 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고, 음란한 여성은 풍기문란의 위험이 있으니
 거리에 나서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허용되는 새
 로운 시대가 왔다고는 하나 이는 ‘정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음란자’
 는 예외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매)음녀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그
 들 역시 근대국가의 일원으로서 여성의 책무를 다할 것을 강조한 일련의
 작품들⁹⁶⁾과 근본적으로는 궤를 같이하면서도, 정렬성품을 갖추지 못하고
 자녀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는 여성은 근대국가 건설에 참여할 자격이 없고
 따라서 사회로부터 격리될 것을 주장한 점에서는 미묘한 인식 차이가 발견
 된다. 즉 음녀에 대한 비난은 연속되고 있으나 회개를 통한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강조한 담론이 있었던가 하면 사회와의 격리를 강조한 담론이 있었
 던 것이다.

3.3. 근대 위생을 위협하는 여성 : 병적인 더러운 존재

음녀로 지목된 여성들은 근대 위생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근대의 위생담론은 19세기에 다양하게 전개된 인종주의 담론 가운
 데 청결과 불결, 깨끗함과 더러움이라는 통념적 이분법을 통해 가시화되었

95) <시스평론>(1909. 5. 22)

96) “비느이다 비느이다 하느님의 비느이다 부녀들은 고루흐나 하느님이 양호시니 전일죄악 용
 서흐샤 음란한 몸 타파흐고 정렬성품 주시옵서 자녀영육 모범키를 신년새히 비느이다” <시
 스펡론>(1909. 1. 1) “가련흐다 매음녀야 하느님이 사름낼 제 심명보존 지킴을 너희들은
 모를손가 라터 안코 근간흐면 생활방도 만홀지니 이런 형외 다 버리고 어서 빗비 회기흐야
 죠흔 스업 흐 연후에 사름노릇 흐여 보소” <시스평론>(1909. 3. 31)

고 문명과 야만의 경계를 가르는 결정적 항목 가운데 하나였다.⁹⁷⁾ 개항 이후 매춘이 확산되자 성병이 크게 번져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1906년에 우리 역사 상 최초로 창기들에 대한 성병검사가 실시되었다. 그런데 서울에서 처음 검사가 실시되었을 때 그 과정이 매우 강압적이고 비인간적이어서 창기들은 크게 반발하였다. 지방으로 도주하여 내려가기도 했고 아예 폐업하기도 했다.⁹⁸⁾ 그러나 성매매 공간에 있는 이상 여성들은 성병과 연관된 병적인 존재로 취급되었고, 안전한 성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분하에 수치스런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다.

○ 매음녀야 매음녀야 너즈힙신 호는 법이 슈족 잠스간 늬 뵈여도 옥보왔 다 흘 터인더 매음녀로 붓잡히면 병이 있나 검사홀 제 깃히 깃히 감춘 몸을 성전초면 남즈의게 히괴망측 다 내뵈니 가련하다 네 신세여⁹⁹⁾

○ 일부종스 못호고서 형음호기 일반인디 고루거각 신터 중에 슈치 업시 왕리호며 골육통간 더 음녀는 감불성의 검사 안코 만만홀스 우리들만 위협 공갈 즈심인가 창기비의 원망이오¹⁰⁰⁾

생전 초면의 남자에게 수치를 무릅쓰고 검사를 받아야 하는 그들의 신세를 가련하게 바라보는 시적 화자의 시선에는 일종의 동정심이 묻어난다. 이는 근대계몽의 차원에서 매음녀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훈계하려는 강압적인 담론과는 조금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매음녀가 시적 화자로 등장한 데서는, 骨肉通姦의 패륜행위를 일삼는 음녀들은 검사하지 않고 자신들만 검사를 받도록 공갈협박 하는 것을 원망하는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一夫從事의 시대는 이미 가고 行淫이 일반화된 마당에 娼妓輩만 성병 관리 대상이 되는 점을 역올해 하는 심정이 역력히 드러난다.

97) 김백영, 『지배와 공간-식민지도시 경성과 제국 일본』, 문학과지성사, 2009, 443면.

98) 강정숙, 앞의 논문, 208면.

99) <시스평론>(1909. 3. 31)

100) <시스평론>(1908. 12. 22)

○ 음녀들이 들어보쇼 **청년과부 되랴이면** 규중에서 **혼탄** 말고 **기가힘이 당연인디** 화조월석 재를 쏘아 유장천혈 통간하며 다른 사람 하나 업시 비밀 한다 흘지라도 신명봄을 네 아느냐¹⁰¹⁾

○ 지리세월 더디도다 **화촉동방 더 음부**는 방탕훈 뜻 잇고 보면 호걸남즈 허다하니 **기가힘이 정□헌디** 금슈又흔 형위 **하야** 추흔 소리 **랑자**하가 호로 밧비 늙어지게 더 세월을 쫓쳐 볼까¹⁰²⁾

○ 못살겠네 못살겠네 나는 진정 못살겠네 **남녀간에 짝을 지어 서로 살남** 하는 것이 **위성 상에 무해인디** 유부녀의 매음홈은 치지불문 하면서도 과부 되어 **기가**코져 **혼두** 남자 선본 거슬 **매음녀로 잡아다가 병** 있다고 **검사**하니 경위 업서 못살겠네¹⁰³⁾

멀쩡한 남편을 두고도 외간 남자와 어울리는 여성도 문제지만 더욱 문제 되었던 대상은 ‘젊은 과부’였다. 일찍 과부가 되었다면 규중에서 한탄하지 말고 빨리 改嫁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개가는 하지 않고 여러 남자들을 만나러 다닌다면서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花朝月夕 좋은 때를 따라 窻牆穿穴¹⁰⁴⁾하며 通姦하는 여성, 禽獸 같은 행동으로 추한 소문이 난 여성은 모두 음욕을 채우기 위해 ‘개가를 거부한’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남성 계몽지식인의 시각과는 달리, 이들 여성은 개가를 거부했다기보다는 정식으로 개가할 수 없었던 상황에 놓여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帝國新聞』¹⁰⁵⁾에 실린 <寡婦改嫁論>이나 <改嫁上訴論> 등의 기사를 보면 당시 과부개가가 허용되었다고는 하나 실제로 개가하기는 쉽지 않았던 정황이 포착된다. 개가한 사람의 자손은 좋은 벼슬을 주지 않는다는 생각

101) <시스평론>(1908. 12. 29)

102) <시스평론>(1908. 10. 15)

103) <시스평론>(1909. 4. 16)

104) ‘유장천혈’이란 담에 구멍을 뚫는다는 뜻으로, 재물이나 여자를 탐내어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감을 이르는 말이다.

105) 『제국신문』은 1898년에 창간된 한글신문으로 문명개화와 자주독립, 한글 보급 등을 위해 노력하다 1910년 일제에 의해 강제 폐간되었다.

때문에 혹시라도 가문의 영달에 문제가 될까봐 허락하지 않았고,¹⁰⁶⁾ 설령 개가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남의 비난이 두려워 예법에 맞게 親迎하지 못하고 유장천혈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¹⁰⁷⁾ 계몽담론의 차원에서 젊은 과부들은 쉽게 음녀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었고, 따라서 개가를 통해 一夫一妻의 혼인 관계를 회복하게 함으로써 남편이 없다는 빌미로 여러 남자를 만나는 기회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예법에 맞게 개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실제 마련되지 않았고, 과부는 손쉽게 음녀로 매도될 수 있는 불안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런가 하면 과부가 시적 화자로 등장한 데서는, 개가를 목적으로 한 두 남자 선을 보았다가 매음녀로 간주되어 성병검사를 당한 억울한 사연도 들을 수 있다. 정작 유부녀들의 매음은 단속하지 않고 과부들만 예의주시하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는 과부라는 처지 자체가 부당하게 취급될 수 있는 빌미가 된다는 점을 꼬집는 것으로, 과부의 음행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던 앞의 작품과는 사뭇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서는 과부의 목소리를 통해 ‘남녀 간에 짝을 지어 살림하는 것이 위생상 무해’하다고 하여 일부일처의 관계를 위생의 차원에서 언급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즉 ‘烈女不更二夫’ 혹은 ‘一夫從事’ 등의 유교적 규범 차원이 아닌 근대 개인위생 차원에서 부부관계를 바라보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한편 매음하는 여성들은 노골적으로 ‘汚穢物’이라 표현되기도 했다.¹⁰⁸⁾ 직업적인 매음녀이건 밀매음하는 유부녀, 과부 등이건 간에 성을 상품화하는 여성들은 모두 ‘더러운’ 존재로 비난받았다. ‘鄙陋’ ‘醜陋’ 등의 단어가 음녀를 묘사할 때 자주 등장하는 것도,¹⁰⁹⁾ 그들이 더러움과 관련되어 인식되

106) “지가한 사람의 존손은 조흔 벼슬을 주지 않는 사됨에 목전에 가화는 생각지 안코 다만 러두에 벼슬하기만 중히 녀여 이갓치 남의게 적악을 헐더니 개화 이후에 성은이 하늘 갓흐샤 과부 개가하는 거슬 허허섯것만은 지우금 점자는 집 과부 식집갓단 말을 듯지 못했스니 무삼 사됨인지 알 슈 업거니와” <寡婦改嫁(論)> 『제국신문』(1899. 10. 14)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편, 『한국여성관계자료집 근대편』(상),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9, 110면)

107) “설혹 지가하는 자가 잇더러도 남의 침밧고 꾸지즘을 두려우야 감이 레법으로 친영하는 일이 업서서 유장천혈하는 것을 면치 못하니 엇지 레법에 어긋미 아니릿가” <改嫁上訴(論)> 『제국신문』(1900. 12. 5) (위의 책, 125면)

108) “○ 남즈 보면 손목 잡고 억력으로 매음하는 더 오예물” <시스평론>(1908. 1. 8)

는 정황을 드러낸다. 근대 보건위생 담론을 통해 ‘청결’에 대한 선호와 ‘불결’에 대한 혐오감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음녀들은 추하고 더러운 존재로 낙인찍혀 버렸던 것이다.

4. 맺음말 : 부정적 여성 형상의 지속과 변모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매일신보』 소재 시가에 나타난 음녀는 외모를 꾸미는 여성, 거리로 나온 여성, 근대 위생을 위협하는 여성이었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기녀와 같은 특수 계층의 여성들에게 허용되었던 화려한 화장이나 사치스런 의복이 더 이상 어느 계층의 여성에게도 용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요란한 화장과 과도한 차림으로 남성을 유혹하는 여성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고 매서웠다. 그런가 하면 남녀동등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여성들은 근대국가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문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작 문 밖으로 나온 여성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다. 이들은 밤마다 연극장을 전전하며 외간 남자를 유혹하거나, 구경삼아 혹은 이유 없이 도시 거리를 떠도는 음녀들로 지목되었다. 어찌 보면 이들은 새로운 근대적 취미 공간인 연극장을 즐겨 찾고 도시의 거리를 산책한 도시민이었으나, 근대계몽담론에서는 매우 음란한 존재일 따름이었다. 한편 음녀는 성병과 관련되는 추하고 더러운 존재로 부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정기검사 대상자가 아니면서도 음행을 저지르는 여성들은 더욱 문제되었고, 과부는 쉽게 음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존재로 예의주시 되었다.

한편 본고에서는 이러한 음녀 담론이 근대전환기 서울의 도시화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서울에는 저녁이면 남녀들이 몰려

109) “○ 음녀들아 들어보쇼 돈건궤한 증승들도 식기날 때 아니 되면 호는 흥동 정결인더 당당 국민 분조로서 럽치 업시 츄루 하니 돈건에나 비호지도 더 돈건이 노여홀 뜻 그 신세를 네 아느냐… 음녀들아 들어보쇼 연희장을 설치호고 풍속괴란 호는 자도 천참만륙 호겠는더 그중에서 잡류비를 서방으로 고르라고 주야 업시 츄축홀 제 제 눈아긋 호며 발광하니 비루함을 네 아느냐” <시스평론>(1908. 12. 29, 밑줄 필자)

드는 연극장이 있었고, 화려한 야경으로 도시민을 유혹하는 진고개, 본정 등의 거리가 있었으며, 돈만 있으면 언제든 성적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매물이 있었다. 조선후기 뺨덕어미나 괴똥어미와 같은 부정적 여성 형상이 문학작품에서 부각된 이래, 20세기 초 이러한 도시적 배경 속에서 여성의 '음란'은 더욱 문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음란함은 웃음 유발이나 가벼운 풍자에 그치지 않고 근대국가 건설의 걸림돌로 강력히 규탄 받아 마땅한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서 이전과는 사뭇 다르다.

그런가 하면 조선후기 자주 문제되었던 여성의 게으름이나 음식 욕심 등은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은 것도 특징적이다. 게으르고 먹는 것에 집착하는 추잡한 여성 형상이 점차 사라져간 대신 화려하게 차리고 부지런히 문 밖으로 다니며 성적 욕망을 발산하는 여성 형상이 이 시대에 더욱 문제되었던 정황을 포착하면서, 전통적인 부정적 여성 형상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지속되고 또한 변모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후기 이래 근대 전환기를 전후한 시기의 음녀 담론을 검토한 본고의 논의는, 앞으로 淫女와 짝을 이루는 愚夫에 대한 시각의 흐름을 함께 살펴볼 때 더욱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¹¹⁰⁾ 본고에서는 미처 살펴보지 못했으나 이는 후속 논문을 통해 진행하고자 한다.

www.kci.go.kr

110) 이는 심사과정에서 조언 받은 것으로, 음녀라는 여성 형상과 우부라는 남성 형상을 함께 고려하고 상층부와 하층부의 시각을 동시에 견취가면서 남녀의 정욕에 대한 인식이 근대 전환기를 거치며 어떻게 변모하는지 규명하는 작업은 앞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자료

- 강명관·고미숙 편, 『근대계몽기 시가자료집』 1-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0.
- 『국역 심리록』 1, 민족문화추진회, 1998.
- 권영철 편, 『규방가사』 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 『반도시론』 제2권 제10호, 1918.
- 이덕무, 「사소절」, 민족문화추진회 편, 『국역 청장관전서』 6, 숲, 1997.
-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 『완역 이옥전집』 2, 휴머니스트 2009.
- 유만공, 임기중 역주, 『우리 세시풍속의 노래』, 집문당, 1993.
- 이능화, 이재곤 옮김, 『조선해어화사』, 동문선, 1992.
- 이우성·임형택 역편, 『이조한문단편집』 (상), 일조각, 1973.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편, 『한국여성관계자료집 근대편(상)』,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9.
- 정재호 주해, 『초당문답가』, 박이정, 1996.
- 『청구영언』 (육당본)

2. 단행본

- 고동환, 『조선시대 서울도시사』, 태학사, 2007.
- 김백영, 『지배와 공간-식민지도시 경성과 제국 일본』, 문학과지성사, 2009.
- 노형석, 『한국 근대사의 풍경』, 생각의 나무, 2004.
- 우수진, 『한국 근대연극의 형성』, 푸른사상, 2011.
- 육민수, 『조선후기 가사문학의 담론 양상』, 보고사, 2009.
- 최완기, 『조선시대 서울의 경제생활』,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1994.
- 한국고문서학회 편, 『조선시대 생활사』, 역사비평사, 1996.
- 홍성철, 『유곽의 역사』, 페이퍼로드, 2007.
- 홍인숙, 『근대계몽기 여성담론』, 혜안, 2009.
- 이사벨라 비숍, 신복룡 역주,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 집문당, 2006.
- 제이콥 로버트 무스, 문무홍 외 역, 『1900, 조선에 살다』, 푸른역사, 2008.
- 지그프리트 겐테, 권영경 역, 『독일인 겐테가 본 신선한 나라 조선, 1901』, 책과 함께, 2007.

3. 논문

- 강정숙, 「대한제국·일제 초기 서울의 매춘업과 공창 제도의 도입」, 『서울학연구』 11,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1998, 197~237면.
- 공승연, 「근대 기생 복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1~100면.
- 길진숙, 「뽕떡어미와 괴뽕어미의 일탈과 그 성격」, 『한국고전연구』 19,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85~118면.
- 김백영, 「서울, 괴물의 얼굴에 가려진 ‘古都」, 『내일을 여는 역사』 36, 내일을 여는 역사, 2009, 184~203면.
- 김영근, 「일제하 식민지적 근대성의 한 특징: 경성에서의 도시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57, 한국사회사학회, 2000, 11~44면.
- 박숙자, 「1920년대 사생활의 공론화와 젠더화」, 『한국근대문학연구』 7, 한국근대문학회, 2006, 179~198면.
- 변주승, 「조선후기 유민정책 연구」, 『민족문화연구』 7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1, 55~99면.
- 유승희, 「19세기 여성관련 범죄에 나타난 갈등양상과 사회적 특성」, 『대동문화연구』 7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1 139~168면.
- 유승희, 「근대 경성 내 유곽지대의 형성과 동부지역 도시화」, 『역사와 경계』 82, 부산경남사학회, 2012, 137~174면.
- 이행화·박옥련, 「근세 일본과 한국의 화장문화 비교」, 『일본근대학연구』 29, 한국일본근대학회, 2010, 295~314면.
- 이형대, 「계몽가사와 성적 욕망의 시적 인식」, 『한국문화연구』 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학연구소, 2001, 251~271면.
- 이형대, 「풍속 개량 담론을 통해 본 근대계몽가사의 욕망과 문명의 시선」, 『고전과 해석』 창간호,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06, 7~33면.
- 정인숙, 「조선후기 도시의 발달과 여성의 소비문화에 대한 담론의 성격」,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2, 221~258면.
- 정하영, 「심청전에 나타난 악인상-뽕떡어미론-」, 『국어국문학』 97, 국어국문학회 1987, 5~29면.
- 조희진, 「근대적 복식 유행의 출현과 사회적 수용: 식민지시기 언론 매체 기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260면.
- 최기숙, 「도시, 욕망, 환멸: 18·19세기 ‘서울’의 발견」, 『고전문학연구』 23, 한국고전문학회, 2003, 421~453면.
- 최혜진, 「개화기 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몸 담론」, 『어문연구』 68, 어문연구학

회, 2011, 365~399면.

홍나영, 「조선시대 복식에 나타난 여성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81~102면.

Urbanization of Seoul on Modernizing Period and the Characters of
Discourses about Lewd women
- focused on the Daehanmaeilinbo -

Jeong, In-sook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urbanization of seoul on modernizing period and the characters of discourses about lewd women. Especially poetic texts on the Daehanmaeilinbo(大韓每日申報) are under discussion in this paper. The characters of lewd women in poetic texts on the Daehanmaeilinbo are as follows.

The first, lewd women are often described as women adorned with fancy clothes and put on heavy make-up. They waste money and act lasciviously. The second, lewd women are often described as women on the street. They look on something or wander the streets. The third, lewd women are often described as women who threaten hygiene. They are described morbid and dirty.

These characters of lewd women have to do with the negative female characters in late chosun. Among the negative female characters, lewdness is magnified as a considerable controversy. Men of enlightenment and patriotism in early 20th thought that every woman had to be virtuous for modern nation-building. However we can find differential views in discourses about enlightenment that seem like inflexible at first appearances.

Keywords : lewd women, Seoul, urbanization, extravagance, consumption, hygiene, modern enlightenment

접수일자: 2012. 8. 31
심사기간: 2012. 8. 31~2012. 11. 20
게재결정: 2012. 11. 20